신산업·문화관광 어우러진 국제무역도시로

개청 10주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20청사진' 발표

500개사 250억달러 투자 유치·일자리 24만개 창출

18조원 투입…기능성소재·해양플랜트 클러스터 구축

이희봉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장이 24일 열린 개청 10주년 2020 비전 선포식에서 4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밝히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GFEZ·청장 이희봉)이 국내외 산업·투자정책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2020년까지의 정책 발전 청사진(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상황실에서 개청 10주년을 맞아 '2020 청사진(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GFEZ는 2020 발전 비전을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 무역도시'로 새롭게 정립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생산기지 조성 ▲동북아 복합 물류와 비즈니스 ▲국제적인 문화관광 정주도시 건설 ▲맞춤형 투자유치 및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4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2개 핵심과제를 작성했다.

또 투자유치 500개사 250억 달러, 직·간접 고용창출 24만명 달성, 새로운 먹을거리인 부품 소재산업, 신개념 복합 문화관광 단지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산업 적극 유치 등 지역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FEZ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조원을 이미 투입한 데 이어 앞으로 2020년까지 18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FEZ는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광양제철~여수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산업벨트를 활용한 세풍 신소재산단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과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 관련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또 하동 갈사만 해양플랜트 산단은 국제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원 건립,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IOGS) 등을 유치해 해양플랜트 RDE&P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특히 황금 바이오 패키징 산단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 패키징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또한 광양항을 복합 물류중심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 항로를 개척하고, 대형선박(25만t급)의 안전한 입·출항과 체선율 감소로 2020년까지 물동량 485만TEU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양항 복합 물류단지(서측 배후지)내 '4개 특성화 존(ZONE)'에 적합한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정보·물류·교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합형 Biz-Area 지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희봉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국내외 경쟁시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 기업현장 애로 해소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곡성 기차마을 '토요장터' 29일 개장

주말 관광객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토요 장터〈사진〉가 오는 29일 개장한다.

2012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계기로 시작한 토요시장은 매년 봄에 개장해 주말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 할머니들이 직접 채취한 나물류를 비롯해 지역농가들이 생산한 농·특산물과 시골 밥상을 관광객들이 저렴하게 구입하고, 맛볼 수 있다.

또한 시장 주변에는 섬진강 기차마을과 오토 캠핑장, 펜션, 섬진강 자전거길이 자리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백태순 상인회장은 "상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온 고객에게 보다 좋은 품질로,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단백질 함량 높고 수확량 많은

김 신품종 '전해연 1호' 개발 성공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품종등록 출원도 마쳐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가 단백질 함량이 기존 일반 김보다 10% 이상 높은 '전해연 1호'를 개발해 국립 수산과학원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에 품종등록 출원(출원번호 2014-01)했다.

해조류연구소는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양식 김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김 생산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김 신품종 연구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해조류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김은 '전해연 1호'. 단백질 함량이 45% 이상 함유돼 있어, 기존의 일반 김(약 35%)에 비해 10% 이상 높다.

또 유리아미노산 분석 결과 감칠맛을 내는 인자이면서 만성 피로 회복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틱산'(aspartic acid)의 경우 '전해연 1호'에는 9.6mg%로 일반 김에 비해 2.5배나 많다.

단맛을 내는 대표적인 인자이면서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알라닌(alanine)과 글루타민(glutamine)은 각각 242.6mg%, 64.5mg%로 약 1.6배 많고, 기타 미네랄 성분 또한 다량 함유돼 앞으로 김 종자 및 양식, 가공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해양수산과학원의 전망이다.

'전해연 1호'는 또 일반 김 품종과 달리 종자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김의 성장 속도가 빠르며 수확시기 또한 약 20일 전후로 수확량 역시 많다는 장점도 있다.

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전해연 1호를 지난해 7월 '녹색땅 전남 해향'으로 상표등록한 데 이어 지난 3일 신품종 등록 출원을 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기술 이전 및 상표권 사용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조영현 해조류 연구소장은 "고품질의 품종을 개발해 안정적인 계획생산을 위해서는 변해가는 어장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 연구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지역에 적합한 김 신품종 개발과 보급, 개량,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 햇양파 수확

고흥군 거금도 들녘에서 주민들이 한겨울을 이겨낸 햇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고흥군은 올해 재배면적 증가와 겨울철 기상여건이 좋아 574ha서 3만 7000여 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친환경농산물 가공업체 213곳 유기인증 교육

전남도는 25일 친환경 농산물 가공업체 2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기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를 위해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도내 유기가공식품 인증 우수업체 대표의 사례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한 전국 549개 업체중 전남지역 인증업체는 109개 업체로 전국의 19.8%를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식품선호 경향이 유기인증식품으로 변화할 것에 대비해 지난 2009년부터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교육 등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구례 마산 보건지소 준공…진료업무 시작

구례군 마산 보건지소가 지난 20일 문을 열었다.〈사진〉

구례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3억7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산 보건지소를 건립했다.

마산 보건지소는 지상 2층(연면적 320.97㎡)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최신 진료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군은 올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총 4억7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보건의료원 개·보수 사업을 벌인다. 접수와 대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고, 진료실의 기능 개선과 조리실 등 보건사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과의 교류향상을 꾀하게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욕구 충족과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구 기자sg@